**하나노미야코 공원**

야마나카코 호수의 서북쪽, 넓은 하늘 아래에 계절마다의 꽃이 활짝 피는 하나노미야코 공원은 서쪽으로 20km 거리에 있는 후지산과 심플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. 12월부터 1월까지는 후지산 정상으로 태양이 저무는 그 순간에만 보이는 유명한 ‘다이아몬드 후지’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

해발 1000m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이 공원은 서늘한 기후의 영향을 받아 개화하는 시기가 도쿄보다 1개월 정도 늦습니다. 1년 중 가장 먼저 피는 꽃은 4월 하순에 피는 튤립입니다. 그리고 네모필라, 안개꽃, 양귀비, 해바라기 등 다양한 꽃들이 그 뒤를 잇습니다. 9월에는 수확제가 개최되며 단풍은 10월부터 11월 초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. 겨울이 되면 이 공원에서는 매일 밤 일루미네이션 판타지움이라는 라이트 업 이벤트가 열리고 주말에는 불꽃놀이 행사도 펼쳐집니다.

이 공원의 동쪽 끝에는 열대 식물과 사계절 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천후형 온실 ‘플로럴 돔 후라라’와 폭포, 그리고 용암수형을 관찰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. 용암수형이란 수목이 용암류에 덮쳐져 타 버린 후 구멍이 된 것을 말하는데 이 공원 지하에도 용암수형이 존재합니다. 공원을 건설하던 중에 이 용암수형이 발견되자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그대로 보존했습니다.